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새벽 잡지

2025년 8월

목차

특집 기사	2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2
성경 연구	24
하나님의 건축	24
성령의 성전.....	29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니	34
찬양의 제사.....	39
살아있는 돌.....	43
기독교의 삶과 교리	48
불로 단련된 금.....	48

성경과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그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모든 남자가 모든 곳에서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의심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1티모데 2:8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부모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전장에서 보호받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그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왜 한 국가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종종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응답을 증언하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에서 요청한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주셨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이 일부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다른 이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사도행전 10:34). 따라서 하나님이 일부 기도는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독교 경험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널리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더 높은 권능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깨달은 표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과 연락을 시도하는 모든 이의 진실된 열망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더 높은 주권적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는 거의 보편적인 충동은 원초적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창세기 1:27).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 그의 성격 속의 신성한 형상은 크게 흐려졌고, 많은 경우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기도하려는 충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종종 기도해야 한다는 를 느끼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의 기도 정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왜 그는 일부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다른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암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리기를 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많은 말" 때문에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5-7). 이로써 우리는 기도에는 적절한 태도와 부적절한 태도,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임할 때 진실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방법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구하나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야고보서 4:3).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일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정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축복의 풍요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시편 92:1).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그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마음과 목소리를 들어 올려 감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기도는 창조주의 성품의 영광스러운 속성—그분의 지혜, 정의, 사랑,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려는 열망이 우리 기도의 많은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 시편 29:1,2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도 적절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도록 권고합니다(요한일서 1:7-9). 바울은 이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거기서

자비를 얻고 모든 필요의 때에 도움을 주는 은혜를 찾는 것이라 말합니다. - 히브리서 4:16

또한, 주님으로부터 특정 축복이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특히 이 기도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는 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는 여행 중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백만 명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 서로 대립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각자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진실하다고 가정하며, 당연히 그들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기도가 요청된 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정당화합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자녀가 전장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위한 기도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 따라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한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어떤 기도도 그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국가들에게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그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견이 사람들의 기도의 설득력이나 열정에 의해 흔들리거나 계획이 바뀌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게 얼마나 적은 신뢰를 가질까요!

“네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모든 경험 속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마음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예수님의 사례는 뛰어난

모범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그에게 고통과 두려움이 덮쳤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인해 부서질 지경입니다.’ ... 그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 마태복음 26:38,39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자 구세주로써 수모와 죽음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특징은 구약 의 성스러운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이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뽑자,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 요한복음 18:10,11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썼습니다(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1:29).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육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특정 지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무게는 이들에게 있지 않고,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점을 더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요한복음 15:7)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는 특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붙은 조건을 주목하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경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18) 이는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없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의 의지와 조화를 이룬 것만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유리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13).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약속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네 왕국이 오소서”

누가복음 11:1에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범 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간결한 기도 개요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2절) 성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누가복음 3:23,38).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아들의 지위를 잃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즉 전체 인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특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것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태도는 항상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소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적절히 거룩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분께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드러져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5:16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게 정죄받은 종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우리의 변호자 외에는 신성한 보좌 앞에서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1서 2:1).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용서와 모든 다른 축복을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4:16). 만약 우리가 그의 이름을 바르게 거룩히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결코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주기도문)를 따를 때, 우리의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 타인의 축복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간구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마태복음 6:10; 루카복음 11:2).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세월을 통해 사람들이 기도해 온 많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모든 사람의 정당한 소망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왕국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건강,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인류가 갈망하고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왕국을 통해 미리 예정되고 제공되었습니다. 이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그 왕국이 백성들에게 보장할 축복의 많은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도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응답은 때가 되어 올 때, 그들이 감히 희망해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전장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는 자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기도할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귀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의 감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모는 때로 자녀가 죽음으로 잠들며 피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멸망하는 종족의 일원이며, 전장에서 죽는 것과 나중에 노환으로 죽는 것의

차이는 영원의 끝없는 흐름과 비교할 때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것을 훨씬 초월한다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미미한 능력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생명의 길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성취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성숙에 이르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합니다(시편 41:13; 90:2). 그는 우리 짧은 생애 내에 자신의 계획의 특정 단계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의 뜻에 맞는 특별한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가, 그 응답이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응답이 올 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날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의 ‘내일’ 시대, 즉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인 천년 기간에, 세상 이 정당하게 갈망해 온 모든 축복과,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들이 인류에게 풍성히 쏟아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백성들은 그때 응답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도다... 그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 이사야 25:9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뜻과 조화되지 않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 원칙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백성에게 축복을 구하지만, 그들이 갈망하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조화로운 것을 구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 마태복음 6:10

하나님은 그의 뜻과 조화를 이룬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그분은 그 뜻이 땅에서도 동일한 정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땅에 존재하는 악들이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적 세계의 삶에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큰 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 (시편 122:6; 나훔 1:15).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기도는 하나님이 평화를

세우시는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그 계획은 그의 왕국 계획입니다. (에스겔 37:21-28). 그는 왕국을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정부에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어깨에 정부가 있을 것이며, 그의 통치와 평화의 증가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 이사야 9:6,7

의심의 여지없이 하나님은 인류가 전쟁을 폐지하려는 열망을 동정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국제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전쟁이 불가피해 보일 때, 양측의 신실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차이점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마침내 평화의 실행 가능한 공식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지구의 통치권을 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6) 그때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에서 "주님의 산"으로 상징됩니다. 미가 4:1-4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리니 백성이 말하되,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칼을 낫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님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군축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며,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들이 군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의 뜻은 그의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고 다윗이 예언하였다. - 시편 46:9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고려의 2 부는 다음 달의 새벽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수 세기에 걸쳐 드러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한 답을 줄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핵심 구절: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으니, 이미
세워진 기초 외에는 없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11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9-17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더라도, 적절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고, 바닥과 벽이 휘어지며, 지붕이 처지고,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기술로 지어진 위풍당당한 기념비는 사용

불가능한 폐허가 되어 버려진 눈엣가시가 되며,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기초, 수평이고 직각이며, 세대를 거쳐 그 위에 세워진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바로 그런 확실하고 영원한 기초가 우리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구조를 세우기 위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핵심 구절에서 말하듯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을 더 확대하여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쓰면서, 주님의 헌신된 자녀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쌓아 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고린도전서 3:9

이 비유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한 다른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고린도후서 5:17)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담과 그를 통해 정죄받은 인류의 잃어버린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5:18, 19; 디모데전서 2:5, 6).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함이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5:14,15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 바울은 이 일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쌓는 일에 비유합니다. 이는 그의 말씀에 담긴 귀중한 진리와 약속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3:12)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2:10

기독교 성장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육적인, 즉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시적인 인간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 고린도전서 3:1-4

여기서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하는지가 중요함이 강조됩니다. 사도는 일부 사람들이 “나무, 짚, 짚단”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육의 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12-15절). 바울은 기독교인의 건축 작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도권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이며 아볼로는 누구이겠는가? 너희가 믿게 한 종들일 뿐이다. ...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 고린도전서 3:5,6

성령의 성전

핵심 구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19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12-20

오늘의 수업에 인용된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부도덕함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자랑은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는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6). 그들은 거짓된 형제애의 감각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의하게 한 한 죄인에 대해 그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교제에서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그들의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절).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한 형태로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님의 백성인 교회에 불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의 백성에게 붙은 일부 전도자()의 과거 습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일반 주민들은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중 그리스와 로마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베누스가 특히 숭배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전 숭배에 불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는 처음에는 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경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었으며, 바울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잘못에 맞서 싸운 것을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2:1-11). 바울은 이 형제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기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취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 개인이 교훈을 배웠다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그를 슬픔으로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바울은 교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교제 속에 회복시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이 조치를 취한다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도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성전은 상징적으로 말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로 여겼으며,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성전은 그 벽 안에 우상 숭배가 세워지면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상징은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각 신자의 육체적 몸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이미지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그는 "너희도 살아 있는 돌처럼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5) 여기에서 헌신한 각 신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인 "집" 또는 "성전"의 일부로

준비되고 있는 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히브리서
3:6; 에베소서 2:19-22; 마태복음 6:10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니

핵심 구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19

선정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11-19

예수님의 랜섬 희생의 피로 제공된 구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 중 하나는,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8:14-16; 요한일서 3:1,2). 이와 일치하여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다.” - 고린도후서 5:17

에베소서 2:8-10에서 사도는 이 새로운 아들의 지위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이르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아들의 계약에 들어간 후에는, 실제로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 야고보서 2:17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우리 머리에게서 뿌리내린 성품의 열매가 발전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8; 갈라디아서 5:22,23). 받아들여지는 행위는 또한 주님, 그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드리는 희생과 섬김을 포함합니다. - 로마서 12:1; 에베소서 4:14,15; 갈라디아서 5:13

우리의 강의에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멀어져 있고, 약속의 언약에서 낯선 자들이며,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12).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는 제공된 수단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지위를 주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수세기 동안 '계명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그 체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15절). 이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에 따른 지상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전한 인간뿐이라는 것이 철저히 증명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이 지상의 특권을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8절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바울은 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 과거의 지위와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한 그룹의 일부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상징적인 “집”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최고의 모퉁이 돌”입니다. (20절) 건축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구성원—모든 돌—이 제자리에 형성되고 맞추어지면,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21,22절) 이 성전은 상징적인 새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으며, 메시아의 왕국에서 땅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1:1-7,22-24

찬양의 제사

핵심 구절: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립시다. 곧 우리 입술의 열매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15

선정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12-21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 제도와 제물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제물의 몫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짐승들의 몸은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 성소로 가져간

피로 인해 진영 밖에서 태워집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의 수치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 - 히브리서 13:10-13

바울은 우리 핵심 구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리라 격려합니다. 그는 이 제사를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하며, 이어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니라”라고 덧붙입니다. - 15,16절

사도의 이 말씀은 성막의 금향단에서 솟에 뿌려진 향료가 달콤한 향기를 내어 지성소로 퍼져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30:1-8) 확실히, 찬양의 제사,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향과 같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러한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 빌립보서 4:18

우리 주제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며 사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분[예수]이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라." (로마서 6:10,11).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산된 사실임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희생과 한 봉사를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로마서 12:1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높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이 복된 부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5). 우리는 아담의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졌다는 확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됩니다. - 이사야 61:10; 빌립보서 3:9; 고린도전서 12:12,27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그의 진리와 의의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창조물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씁시다. (마태복음 24:14)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의 희생”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핵심 구절: “너희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리라.”

베드로 전서 2:5

선정된 성경 구절:

베드로 전서 2:1-12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다른 결과를 낳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신실함과 불신실함이 교차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6:7)

하나님의 지상 왕국이 임할 때,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 계시록 21:3-7

오늘의 강의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현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즉 "첫 번째 부활"을 통해 하늘의 상을 위해 지상의 야망을 희생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20:6). 베드로는 이들이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 베드로전서 2:5; 1:2

현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베드로가 언급한 대로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의 찬양을 나타내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우리는 한때 어둠에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 중 하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찬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24:14; 5:16)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직에 속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육체의 타락한 경향을 버리고 희생에 참여하는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2:1,5).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14).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자들은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직”에 속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인류의 세계에 의의의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 베드로전서 2:9

핵심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께로 오는 우리는 살아 있는 돌로 준비되어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영적 집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각 돌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제자리에 완벽하게 맞도록 모양이 다듬어지고, 끌로 깎이고, 광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 영적 집의 일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베드로전서 2:9; 티투스 2:14).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이나 "목적을 위한 백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18, 19). 그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1). 그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전에 공허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긍휼을 얻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 1 베드로
2:10

불로 단련된 금

*“내가 너희에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고 권한다.
그러하면 너희가 부요해질 것이다.”*

계시록 3:18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약 2천 년 동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 아래에서 죄로 병든 죽어가는 인간 가족을 축복하는 일에 참여할 특별한 계층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청을 보내셨습니다. 이 강의의 개막 성경 구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 중 이 특별한 계층에 대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불로 단련된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성품을 개발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기록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며, 그의 성품의 형상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그는 그들이 충성스럽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매우 중요한 영적 은사들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구절은 이들에게 "흰 옷을 입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옷을 입게 되고,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눈을 안약으로 발라라. 그리하여 너희가 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높이 평가되는

오늘날 금은 존재하는 금속 중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중 하나이며, 성경 시대에는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습니다. 금은 보통 소량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매우 희귀합니다. 금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금속이며, 피손("증가"를 의미)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손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 중 하나인 피손 강을 가리킵니다. 이 강은 인간 가족을 상징하며, 그 중 특별한 계층이 선택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 특별한 계층은 에덴의 강 중 첫 번째 분수인 피손으로 상징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에덴 땅에서 강이 흘러 나와 정원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 갈래는 피손이라 불리며, 하빌라 땅을 둘러싸고 흘렀다. 그 땅에는 금이 있었고, 그 금은 매우 순수했으며, 향기로운 수지와 온yx 돌도 있었다." - 창세기 2:10-12

금은 희귀성뿐 아니라 오랜 내구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매우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고대에는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소와 은과 금이 매우 많았습니다." (창세기 13:2).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 금은 극히 귀중히 여겨져 쌓아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쌓아둔 부가 무용지물이 되고, 현재의 세상과 그 악한 제도들이 사라질 때를 예언합니다. 야고보는 기록했습니다. "이제 부자들아,

너희에게 닥칠 재난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레가 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 녹은 너희를 고발할 것이며,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아두었다.” - 야고보서 5:1-3

금의 색상, 광택, 산화 및 변색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금은 다양한 종류의 보석과 장식품을 만드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너의 뺨은 보석의 줄로 아름답고, 너의 목은 금의 사슬로 장식되었다.” (솔로몬의 노래 1:10). 금은 다른 금속보다 더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과 상업의 표준 매개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성한 본성

금의 희귀성과 큰 가치 때문에, 성경에서는 금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영적 유산을 가장 높은 삶의 차원인 신적 본성에서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드로 후서 1:4). 오늘의 주요 성경 구절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에서 마지막 교회인 안식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감동적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하리라. 나도 이겼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아 있노라.” (계시록 3:21).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본성을 나누게 되며, 미래의 천국 왕국에서 메시아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왕국을 주리라.” - 누가복음 22:29

그리스도의 신부

구약성경에서 미래 사건을 예표하는 예로, 이삭의 신부 레베카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로 구성된 신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24장 참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신부를 찾으시는 놀라운 약속을 상징하는 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레베카는 미래의 남편인 이삭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힘든 여정을 떠났으며, 이는 그녀가 이삭을 향한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이삭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시기를 마치자, 그 남자[이삭의 종]는 반 세켈 무게의 금 귀고리 하나와 그녀의 손[레베카의]에 두 개의 팔찌를 금으로 만들어 주었다.” - 창세기 24:22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금으로 장식된 미래의 결혼식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금은 그녀가 신성한 생명으로의 영적 보상을 상징합니다. 이 놀라운 유산에 대해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왕의 딸들이 당신의 존귀한 여성들 중에 있었고, 당신의 오른쪽에는 오피르의 금으로 장식된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시편 45:9). 여왕은 주님을 결혼할 신랑으로 섬기는 충성심과 진리와 의의 원리로 충만해진 성격 때문에 다른 귀한

여자들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같은 시편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정의의 지팡이가 당신의 왕국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당신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을 기름 부어 동료들보다 높여 주셨습니다.” - 6,7절

오피르에 대한 언급은 최고 품질의 금의 주요 산지로 유명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시편 작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왕의 딸은 내면이 모두 영광스럽습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짠 옷입니다. 그녀는 왕에게 바늘로 짠 옷을 입고 이끌려 갈 것입니다.” - 시편 45:13,14

천상의 도시

그리스도의 미래 신부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14). 그리스도의 신부인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는 천상의 도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으니, 신부처럼 남편을 위해 단장된 모습이였다.” (계시록 21:2). 요한은 같은 장에서 상징적인 언어로 영광 중에 단장된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나를 영으로 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 주셨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었고, 그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으며, 수정처럼 투명했다.” - 10,11절

금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천상 신부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도시도 신성한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성벽의 건축은 자수정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는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어 투명한 유리 같았다. 성벽의 기초는 모든 종류의 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 문은 단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도시의 큰 길은 투명한 유리처럼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8-21절) 이처럼 하나님의 도시는 민족들 위에 통치할 준비를 마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천상의 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미래 왕국의 통치 아래 모든 땅의 가족들에게 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 - 창세기 22:18; 사도행전 3:25

옛 질서의 사라짐

우리는 현재 이 “현재의 악한 세상” 의 마지막 해를 살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된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시험과 연단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딜 수 있겠으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정련자의 불 같고, 옷을 희게 하는

강한 비누 같으니라. 그는 은을 정련하고 정화하는
자처럼 앓아 레위의 자손을 정련하고 정화하여,
그들이 주께 의로움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 말라기 3:2,3

우리는 이기심과 자만심 위에 세워진 세상의 옛
사회 질서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
사라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민족들 사이의 혼란을
증거로, 루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민족들의 고통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요동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에 빠질 것이며, 땅에 닥칠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니라.
그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의 아들을 볼 것입니다.” -
루카 21:25-27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예언된 “민족들의 고통과
혼란”을 볼 수 있으며, 해결책이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심, 증오, 자만, 그리고 공격의 정신은 잔인하고 강력한 독재 체제를 낳았습니다. 죄, 부패, 불의는 분명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따라 인간 가족은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기심이 신의 권능과 개입으로 제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시대와 세계가 향해 나아가고 있는 큰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만약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22).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왕국의 권능과 영광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인류에게 축복을 베풀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음하는 창조물

가난하고 신음하는 인간 창조물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광기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과 국제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아래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가 땅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음도 없을 것이며,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기록하라.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라.' - 요한계시록 21:4,5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약 2천 년의 역사의 정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의 혼인"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로 입히도록 허락되었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 요한계시록 19:7-9

믿음의 시험

이 시대의 마지막 시기는 주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시험의 때이며, 그리스도의 각 성도의 믿음이 정련되고 정화되며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17). 우리는 현재 땅에 있는 모든 현 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지나가되, 내 말은 결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조심하라. 너희 마음이 잔치와 술취함과 삶의 염려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라. 그 날이 갑자기 닥쳐림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라. 이는 온 땅의 표면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니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모든 일이 임하기 전에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인자의 앞에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 루카 21:31-36

믿음과 행위

천상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들은 항상 철저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의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경계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하라.” (고린도전서 16:13). 우리 안에 적절한 믿음이 자라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나타낼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야고보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 그러므로 너희는 보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이 행동을 낳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며 무용지물이다. 어떤 사람이 말할지 모르겠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동이 있다.’ 그러면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 야고보서 2:14,17,18

우리의 믿음과 개인으로서의 전체 존재는 지금 특히 시험을 받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계시록 2:10)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된 각 성도의 죽기까지의 충성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며, 땅의 모든 가족과 함께 복을 나누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 특히 자기 의지와 육체의 모든 행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 갈라디아서 5:19-21; 고린도전서 5:7,8; 디모데후서 2:21

비록 작품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항상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의 기반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을 욕되게 하며, 그런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을 때,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의 신앙과 행동은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신앙을 완성시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믿음만으로는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사자들을 숨기고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숨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도 선한 행위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 야고보서 2:21-26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영웅들이 서로 믿음에 대해 논의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믿음의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믿음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으며, 그들의 행위가 믿음과 조화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위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일해야 합니다. - 갈라디아서 5:6; 에베소서 6:23

사랑의 표징

사랑의 속성의 발전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교리를 대체할 수 없지만, 교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이나 활동을 대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과 봉사의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협력할 때, 우리는 서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22) 우리는 서로를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해야 하며, 오해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24) 믿음과 사랑은 서로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집니다." - 베드로전서 1:5

많은 이들의 사랑은 “식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일부에게 거부당하더라도 열정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12). 우리가 학대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모욕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결코 박해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21-23) 우리는 강한 믿음과 성결의 사랑의 영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견고한 한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 갈라디아서 5:6

견고한 믿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닦아내시는 동안 시련을 견디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는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을 드리기에 위함입니다. 이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23) 또한,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13,14). 사랑하는 정화자는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이 일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화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보물이 머무는 이 땅의 육체적 그릇에는 불순물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 속에서 시험받는 금과 같습니다. - 고린도후서 4:7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제 자비 구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만일 주님께서 죄를 기록하신다면, 주님,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용서를 베푸시니,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나이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제 온 존재가 기다리며, 그의 말씀에 제 희망을 두나이다.” - 시편 130:2-5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그가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덮으셨음이라. 신랑이 자기 옷으로 단장하듯,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듯.” - 이사야 61:10

로마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계속하며 인내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찾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7).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는 “선한 일을 하며 지치지 말라.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9).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의 형상에 맞추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모습을 반영하게 하시기를 사랑으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5). 우리는 그의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용감히 견뎌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구절들에서 보듯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지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시험이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이 “악한 날”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에베소서 6:13

금보다 귀한 것

사도 베드로는 현재 특별히 정련되고 있는 금으로 상징되는 “선택된 자들”에게 우리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리스도 계급에 대해 그는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순종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들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평화가 더해지기를.” - 베드로 전서 1:2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풍성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살아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예비하셨으니,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지켜지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그로 인해 너희는 크게 기뻐하되, 지금 잠시 동안은 여러 가지 시험[그리스어: 시험에 처함]으로 인해 슬퍼할지라도.” 베드로는 이어서 믿음의 시련이 불에 단련된 금과 같다고 결론지으며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멸망할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니, 불에 단련되어도 멸망하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 3-7절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라: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나는 금처럼 나오리라.” - 욥기 23:10